

“등정보다 더 어려운 일은下山”

“정복하겠다는 욕심마저 버려야 한다
그 욕심이 필경 실패와 죽음 낳기 때문”

산문박의 示 禪

탐험가 허영호 씨



“왜 산을 오르고 왜 극지를 탐험 하는가?”
3대극점 7대륙 최고봉을 모두 밟은 허영호씨도 정작 ‘왜’라는 물음 앞에 선 명쾌한 답을 못한다. 어쩌면 산사나 이에게 있어 이 질문은 영원히 못 풀어 낼 화두일 것이다. 혹자는 ‘산이 그곳에 있어서 오른다’라고 말하지만 허씨는 ‘산이 나를 불러서 오른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들이 자신들의 동반과 탐험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그는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글쎄요. 내가 왜 산을 오르고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서는가를 안다면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떠나는 것이 가장 그 다음 일이며 떠나

계획을 설명하며 오하려 신명이나나 허영호씨는 “불가에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지않습니까. 생각에서 이미 등정과 탐험의 승패가 결정 나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산을 오르고 극지를 탐험하며 그가 배운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소중함이다. 며칠을 방벽에 매달려 잠자며 산을 오를 때에도 오지 마음만이 자신을 지켜 주었고 가도가도 얼음산일뿐인 북극의 추위에서도 마음이 그를 앞으로 더 나아가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살아야 한다거나 꼭 정복하고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욕심이고 그욕심은 필경 실패와 죽음을 부르는 것이니까요. 그저 내가 여기있고 나는 즐거운 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모든

싸움의 상대는 자연아닌 ‘나’...3극점 7대륙 정복

기 위해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 그의 삶 전부인 것이다.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세계일주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정복점으로 삼아버린 이 계획은 ‘더이상 오를곳이 없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직 못 간 곳’이 더 많은 탐험가 허영호’의 속명이다. 지난해 12월 12일 남극 대륙의 최고봉 빈슨 매시프를 밟으며 세운 계획인데 그가 해발 5천 1백 40미터의 정복점에서 또다른 정복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한 그의 등정과 탐험 여정도 쉼이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세계일주 계획인 셈이다.

“자동차로 지구를 일주하며 각 대륙의 오지와 극지 산악지대와 열대우림 지대를 모두 섭렵할 생각입니다.”

산이 나타나면 산을 오르고 사막이 나타나면 사막을 건넌다는 지극히 ‘허영호식’ 계획이다. 여기에 또 그만큼 생각해낼 수 있을 기록도전도 계획되어 있다. 무보급 남극대륙횡단이 그것이다. 아무런 지원없이 썰매를 끌고 3천 km의 남극대륙을 건넌다는 발상.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죽음을 연상시킬만한

생각에서 이미 등정과 탐험 승패 결정 떠나기 위해 돌아오고 돌아오려고 떠나

악조건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영호씨에게 가장 큰 스승은 히말라야다. 두 차례나 에베레스트(해발 8천8백 48m)를 등정한 그는 그곳에서 자연의 외경스러움을 배웠고 산사나이로서의 기쁨을 배웠다. 87년의 첫등정은 세계사상 3번째의 동계등정이었고 두번째인 93년의 등정은 최초의 남북 단 루트 횡단 기록으로 더욱 돋보였었다.

“에베레스트를 두 번 올랐지만 처음의 정상은 약간 평경하더니 두번째는 뾰족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구의 한 극적인 에베레스트 정상의 변화무쌍, 그것은 인간 삶의 무상함과도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요. 부처님께서 교행 했다는 그 설산이 교행자 싯달다에게 얼마나 많은 진리를 전해 주었을것인가를 생각하며 히말라야는 산

사나이의 영원한 도량임을 믿게 됐습니다.”

히말라야가 그에게 도전의 도를 가르친 스승이었다면 마나슬루(8천 156m)는 후퇴의 용기를 가르쳐 준 스승이었다. 83년 마나슬루를 무산소 단독 등정한 그는 정상을 바로 1백미터 앞두고 돌아섰었다. 욕심내어 강행하면 어떻게든 정상이야 오를 수 있었겠지만 내려올 일은 자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해발 8천미터 이상을 산소공급기 없이 오른다는 것은 쉽게 생각도 못할 일이다. 더구나 사람들의 관심이 정복에 있을지라도 산악인에게 등정보다 더 어려운 일은 바로 하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후퇴의 용기를 교훈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함께 떠날 대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먼저 심성을 본다. 인간 능력의 한계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예측불허 그 자체이다. 그

래서 심성이 자신과 통하는 사람과 동행의 우선으로치고 결정된 동반자와 떠나기 앞서 무수한 대화를 나누고 가슴을 열어 하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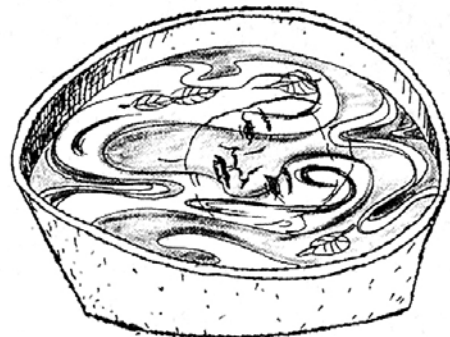
지난해말 남극대륙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를 오를 때에는 초속 20~30미터의 강풍과 영하 30도의 혹한과 싸워야 했다.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수직 30미터의 방벽을 공략해야 했다.

“강풍과 혹한 또는 방벽을 상대로 싸웠다면 실패했을 수도 있었습디다. 나는 그 싸움의 상대를 자연적 여건으로 삼지 않았습디다. 나 자신을 상대로 삼았습디다. 약조건이라는 상황도 나라는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그는 자신을 이김으로 3극지와 7대륙의 최고봉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이다. 술한 화제와 동경의 대상이고 젊은이들의 희망인 허영호씨는 언제 가장 죽을 가까이 갔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람중계웃으며 반문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연태 기자



심화·이기선

날마다 마음에 청정수를...

눈에 티가 들어기면 사물을 바로 볼 수 없다. 티가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눈이 아물거리고 눈물이 가로막는다. 눈은 맑은 수정체로 있어야만 한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금가루라 할지라도 눈에 티끌인 것이다.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려면 눈이 맑아야 하는 것이 정적이다.

남전 상응부 상가라경에 있는 말씀이다.

“붓다가 사위성의 기타(祇陀) 숲의 정사(精舍)에 계실 때, 어느 바라문이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때는 정신이 맑아, 지금까지 배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배우지 않은 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혼미하여 배운 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떤 일입니까?”

“바라문아,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이 있다고 하자. 만약 그 물이 붉거나 푸르면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없

우리가 사물을 본다고 할 때는 가리얏은 마음이 정일된 마음이 되어야 한다. 들떠 있거나 혼미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간하지 않고 사물을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오류를 범하는 일을 하게 된다.

경전의 내용을 살펴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이

쏟아부우면 맑은 물은 물들은 물로 변색되어 버린다. 우리는 변색된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한다. 또한 끓고 있는 물위에 얼굴을 비취보려고 애써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이 뒤끓고 있음을 상징한 것이다. 무어에 끓고 있는가. 노여움, 성냄에 꿩꿩 끓고 있는 것이다. 노여움이나 성냄처럼 무서운 것이 있는가. 그래도 우리들은 용광로처럼 쇠물이 끓어 오르는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도 잘못된 마음이다.

물 위에 이끼나 풀이 동동 떠다니다면 얼굴이 비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날이면 날마다 스스로의 마음을 가리얏아야 함을 간곡히 일러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물에다 물감을 쏟아붓고, 끓는 물을 갖고 다니고, 이끼긴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것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59

정정(正定)

을 볼 수 없

“마음이 맑아, 지금까지 배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배우지 않은 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혼미하여 배운 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떤 일입니까?”

“바라문아,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이 있다고 하자. 만약 그 물이 붉거나 푸르면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없

탐진치 물들면 사물 바로 못봐

마음이 탐욕에 물들어 있을 때는 어느 것도 있는 그대로 비쳐지지 않는다.

또 만약에 그 물이 끓고 있다 하여도 얼굴을 비취볼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마음이 노여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또 물 위에 이끼나 풀이 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배우지 아니한 것이라도 모두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을 때는 어느 것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배우지 아니 하였고 알지 못한 것은 더욱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쉽고도 분명하다. 이것이 깨친 분의 사실이다. 물이 흐리면 어떤 사물도 바르게 영상되지 아니한다. 붉은 물이 든 붉은 물, 검은 색으로 물들여진 물은 어떤 사물들을 그 사물 그대로 투영하지 못한다. 비취지는 것은 비취질만큼 해맑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성이다. 여기서 온갖 물감을

바유하고, 이는 탐욕에 비유하고, 맑은 물은 본노에, 이끼는 어리석음에 비유한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이다. 마음 그것이 맑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맑아진 마음은 물들임, 끓음, 이끼끼이 아니면 해탈한 마음이다. 부질없이 부추김이 있다 하더라도 부추김의 행거레를 타질 말아야 한다.

그러나 누가 너 최고다, 너 아니면 안된다고 응수하여 주면 친자를 분간치 않고 나서기를 좋아한다. 이런 마음의 행보를 보고 부추김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다. 어? 우리는 상가라경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차갑고 맑은 청정수가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마음을 바르게 잡는 공부일 것이다.

대원불교대학

학생 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00명
- 통신과정 00명
- 연구과정 00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원전강독 I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교사상	불교미술	천 태 론	유식철학
연구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